



(사진 왼쪽부터)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서태범 인하대 산학협력단장이 업무협약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인천시 산학협력 협약 “인천스마트시티 함께 구축”

ABBI 연구단, 스마트 생태계 조성
체감 가능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인하대가 인천스마트시티와 손잡고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

인하대는 ABBI(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융합연구단이 최근 인천스마트시티(주)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인천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건설·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 도시다.

ABBI 연구단은 인천스마트시티(주)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민간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한다.

인천스마트시티(주)는 공공, 민간 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관이다. 또 국내 스마트시티 구축 노하우를 해외도시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 hji@



한성대 이창원 신임 총장이 온라인 취임식 영상 제작을 위해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성대

이창원 한성대 신임 총장, 취임식 온라인 전환 “대학·구성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

구성원·외부인사에 e카드 전달

한성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10대 이창원 신임 총장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은 지난해 12월27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0년 2월1일부터 4년이다.

온라인 취임식은 한성대 모든 구성원과 외부 주요 인사에게 e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MS를 통해 전달되는 e카드에는 이 총장의 취임

사,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 축사, 교내외 인사 축하 메시지 등이 영상으로 전달된다.

‘이창원은 소통하고 싶어서’로 이름 붙여진 영상 취임식은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다.

이 신임 총장은 “한성대와 함께한 28년의 기간 동안 대학과 구성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대학의 주인은 우리 구성원 모두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전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여대, 신산업분야 특화 석·박사 양성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선정

서울여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참

여하는 이번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대학·기업 간 공유형 학습 및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분야 특화(IoT, AI,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석·박사급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현진 기자

교육업체들 잇따라 홈스쿨링 서비스 무상 제공

“학생 위해 기업이 할일 한 것”

재능교육

‘재능AI수학’ 4월까지 무료 오픈

NE능률

아이·학부모 위한 콘텐츠 제공

교육업체들이 개학 연기에 따라 주로 집에 머무르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홈스쿨링 서비스를 잇따라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능교육은 신규 런칭하는 초등수학 전 과정을 다룬 에듀테크 기반 서비스 ‘재능AI수학’을 4월까지 무료로 오픈한다. 유아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모바일로 재능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 정보 입력 후 상담을 통해 4월까지 학습할 수 있다. 모든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해 별도 학습기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재능AI수학은 재능교육 스스로 교육연구소의 콘텐츠 연구개발과 진단/처방 노하우를 담아 학습자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개발기간만 약 5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초등학생 학습패턴/속도 분석, 결손 처방 알고리즘 적용에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 초등수학 전 영역을 잘게 쪼개 영역별 학습카드 안에서 ‘진단-처방-학습’의 반복이 이뤄지면서 ‘핀셋으로 집어주듯’ 미세한 학습 결손을 매워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학습자가 ‘무엇을, 왜 모르는지’에 따라 최적의 학



엔이키즈, 유아용 온라인 홈스쿨링 콘텐츠 무료 제공

/NE능률

습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재능AI수학은 재능교육의 신규 서비스로 회원을 대상으로 준비하던 프로젝트였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교육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무료 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NE능률의 유아교육 전문 브랜드 엔이키즈(NE kids)는 4~7세 유아를 위한 온라인 홈스쿨링 콘텐츠를 4월까지 홈페이지에서 무상 제공한다. 엔이키즈는 아이들의 놀이 학습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유료 콘텐츠를다.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독서, 창의 놀이, 미술, 영어, 한글, 수학 등 엔이키즈가 보유한 모든 프로그램의

디지털 교재, 음성 파일, 영상, 애니메이션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 독서 프로그램 ‘상상수프’ ▲창의 놀이 프로그램 ‘상상큐브’ ▲창의 융합 미술 프로그램 ‘크레이노’ 총 3종이다. 상상수프는 해외 유명 도서와 국내 창작 동화를 음성 및 영상 파일로 볼 수 있게 했으며, 상상큐브는 블록과 코딩 로봇을 조립하며 놀이하는 영상, 크레이노는 세계적인 명화 감상 영상을 제공한다.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있다.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 ‘굿잡(Good Job!)’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 프로그램 ‘잉글리시빌 스토리(Englishvil Story)’ ▲누리과정 및 초등 교육과정을 반영한 ‘한글·수학’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軍, 국민혈세로 본인 자리 지키기만 급급



문영철 기자

국방 칼럼

올해 국방예산은 50조원 규모다. 매년 국방예산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군 당국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 보다 국민의 혈세 낭비에 특화된 것 아닌기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집행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덮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군가 가사처럼 “내 자리는 내가 지키다”의 돌림노래가 귓가에 와닿는다. 더욱이 국방예산의 폭대 기인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최근 취재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진다.

지난 1월말 본지는 국방부 예하의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에 담당하는 각각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질의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대변인실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달 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급기야 기자는 지난 16일 방문기자의 국방부 청사를 급지를 당했다. 대변인실측은 전화도 막아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 통제 일환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등록 기자 외에는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군이 예산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더욱이 부대변인은 기자에게 수차례 만나 “차후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하자”라는 말을 건내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 건으로 돌아가보자. 국군심리전단은 지난 2016년 말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심리전 확성기 40대를 전력화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 등의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물론 군 당국도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국군심리전단장(육군 대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징계를 내렸다. 사기로 인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채권법 등에 따라 확성기 대금 잔액 지급정지와 부

정당이의 환수를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2월 중반까지 국방부 대변인실은 입장이 없다 뒤늦게서야 환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를 밝힌 국방부 대변인실 부대변인은 확성기 사업 당시 대변인실 총괄장교로 있던 인물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은 국방시설본부가 시설 감리 등을 책임지는 육군 시설공사에서도 드러난다. 육군의 사격장 등에 총탄의 튀어오름을 막기 위해 사용된 방호벽 납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국계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시설본부는 시설시공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호벽은 이동해체식을 이유로 특허수의 형태로 납품돼 왔다. 그렇지만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설치 중 파손된 것은 고정형이었다.

명백한 사기행위인데 국방부 대변인실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경 등 국가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혈세를 느긋하게 낭비할 수 있을까.

소나비 그치면 내 자리는 지키라는 생각일까. 당신들의 그 자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라는 자리임을 명심해라. /captinm@